

국가등록유형문화재

시고다이라 폭포

위 치 고센시 오면다니
지정 날짜 2012년 2월 23일

공장당(虛空藏堂)은 나라 시대의 승려인 행기(行基)가 덴표 2년(730년)에 북국을 순회하던 중 공장존(虛空藏尊) 두상을 조각하여, 그중 한상을 덴표 4년(732년)에 이곳에 당을 건립하여 안치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또 다른 허공장존은 후쿠시마현 아이즈 지방의 야나이즈로 갔고, 두 허공장존이 갈라선 데서 이 지역을 '별소(別所)'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공장당은 1717년(교호 2년)에 한 번 화재로 소실된 후, 자광사의 보호 아래 1720년(교호 5년)에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보례키 4년(1754년)에 화재로 소실되었으며, 현재의 공중장당은 그 직후 재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찰 내부에는 본존을 모신 내전과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외전으로 나뉘어 있으며, 내부의 들보와 기둥 같은 기본 구조는 웅장하고 힘차면서도 고급스러운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골격은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불당 형식을 갖춘 사찰로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제례는 매년 2월 12일, 13일, 눈 등롱의 불빛으로 환상적인 분위기에 휩싸입니다.

2025년 11월 고센시 월교육위원회